



유럽, 투자형 보험상품 정보제공 규제 강화

이해랑 연구원

요약

■ 유럽 금융감독기관(ESAs)은 투자형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소매투자상품 및 투자형 보험상품(PRIIPs) 주요 정보 제공에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고 핵심정보자료 최종 표준안을 발표함. 그러나 유럽 보험회사는 금융감독기관이 발표한 표준안이 투자비용 정보와 보험료 정보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보험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오도할 수 있다고 주장함. 또한, 보험회사가 표준안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감독기관의 규제 적용 일정이 촉박하다고 주장함. 이에 보험회사는 표준안의 내용 개정과 적용 일정 연기를 요구하고 있음.

■ 유럽 금융감독기관(ESAs)¹⁾은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과 이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매투자상품 및 투자형 보험상품(PRIIPs)²⁾ 정보 제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이번 규제 강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문제 해결을 위한 것임.
 - 규제 시행 이전 소비자들은 투자형 보험상품 거래 시 보험판매업자들의 설명에 의존해 왔고, 상품에 대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구매 결정을 할 수 없었음.

■ 규제강화에 따라 보험회사 등 모든 금융회사는 2016년 12월까지 PRIIPs에 대한 계약 체결 전 핵심정보자료(KID)³⁾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⁴⁾

1) 유럽 금융감독기관(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은 유럽 은행감독기관(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 유럽 증권감독기관(ESMA: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유럽 보험연금감독기관(EIOPA: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을 통칭하는 것임.

2) Packaged Retail Insurance-based Investment Products의 줄임말임.

3) 2015년 핵심정보자료(Key Information Document)는 약 3쪽 분량으로 상품의 주요 특성, 해당 상품투자에 따른 위험 및 비용 정보를 일반 투자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명료하고 평이하게 서술하는 문서로 우리나라의 핵심상품설명서와 유사함.

4) 유럽 금융감독기관은 통합형 소매투자상품 및 투자형 보험상품(PRIIPs) 관련 핵심정보자료 표준안을 배포(2015. 11)하고 기술적 규제표준(RTC: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최종안을 마련(2016. 4)하였으며, 2016년 12월까지 핵심정보자료 최종안의 전 금융기관 적용을 계획하고 있음.

- 동 규제가 적용되는 보험상품은 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생명보험상품이며, 손해보험과 단체 연금상품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소비자에게 보험상품 핵심상품설명서⁵⁾를 제공하고 있는데, 유럽 핵심정보자료는 정보제공 방식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
 - 유럽 핵심정보자료는 금융상품 정보를 문답 형식으로 제공하고, 소비자가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와 표를 함께 제시함.
 - 이는 금융상품 정보제공과 동시에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함임.
- 유럽 보험회사들은 핵심정보자료 표준안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표준안의 형식 및 규제 적용 일정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첫째, 동 최종 표준안 형식은 보험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소비자의 상품 정보 이해를 오도할 수 있음.
 - 표준안에는 투자 및 중개 수수료와 같은 투자 관련 비용 정보와 보험료 정보가 구분되지 않아 소비자가 투자 관련 비용 정보와 보험료 정보를 혼동할 수 있음.
 - 또한, 표준안에 사용되는 시장위험지표는 보험회사의 신용상태를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둘째, 유럽 감독기관이 제시한 표준안 적용 일정이 촉박함.
 - 현재 표준안 적용이 금년 8월 또는 9월에 확정될 예정임을 감안하면, 보험회사의 표준안 적용을 위한 실제 준비 기간은 3~4개월 정도임.
 - 보험회사들은 동 기간 내에 표준안에 대한 관련 시스템 구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금융감독기관에 규제 적용 일정 연기를 요구함.
- 최근 우리나라도 소비자의 금융상품 정보 이해의 측면에서 핵심상품설명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데 유럽 핵심정보자료 표준안에 관한 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kiri](#)

5) 2007년부터 종신보험, CI보험, 자동차보험 등 개인용 보험은 총 4쪽 분량, 변액보험은 총 1쪽 분량의 핵심상품설명서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위험 등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음.